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❸ 생태위기와 무소유



▶한줄 요약
수퀴미시 부족 추장인 시애틀은 땅을 팔라고 압박해오던 미국인들에게 "대지와 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본래 내 것이 없음에도 소유하려는 탐욕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본래 소유는 없다

어떻게 자연을 사고 팔 수 있나

캐나다 밴쿠버와 국경을 맞닿은 미국의 서부 끝 큰 도시가 시애틀이다. 이 도시는 본래 아메리카 선(先)주민 수퀴미시 부족 추장인 시애틀(Seattle, 또는 Sealth)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살던 땅 대부분을 빼앗았고 이제 서쪽 마지막 끝 이곳을 빼앗기 위해 14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선주민 부족 추장인 시애틀에게 땅을 팔라고 압박을 했다. 구매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강탈과 다름없는 협박이었다. 이때 시애틀 추장이 한 연설은 너무도 유명하다.

"워싱턴의 대추장(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습니다. (중략)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요? (중략)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합니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짙은 숲속 안개, 세찬 날개 짓하며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애틀 추장의 연설은 감동의 명문으로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금과옥조같은 성전이 되었다. 당시 이에 감동한 피어스 미국 대통령은 그 추장을 기리며 도시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지었다. 이제 시애틀 추장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당신들이 땅과 나무와 산, 물과 새들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아니 언제부터 사고 팔게 되었는가?

돈주고 산 노예는 당신의 것인가

과거 '노비'는 봉건 영주나 양반들의 소유였다. 그러나 지금 노예란 없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매매했지만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금, 사람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이며,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로 내 것이 된 근거는 '돈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징표가 된다면 노예를 돈 주고 구입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태양이 누구의 것일까? 하늘은, 강물과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땅과 하늘, 바다에 금을 그어놓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 영해 · 영공이라는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내 땅이나 국경이라는 것이 실제 땅에 금이 그어져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저 지도에만 존재할 뿐이다. 지도는 사람들의 관념을 형상화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놓은 '관념적 합의' 일뿐이다. 생각이 만든 약속일뿐이다. '근본의 자리'에서는 자연(자원)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 소유개념을 넘어선 존재이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인 2020년부터 시작한 '무소유 나눔 페스타'의 홈페이지 화면. 자신이 쓰지 않은 물건들을 나누기 위한 불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유란 도둑질이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전(前) 소유자로부터 구입했거나 물려받았을 것이다. 전 소유주는 그 앞의 소유자에게, 또 그 사람은 더 앞의 소유자에게 땅을 구입했을 것이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

수 만년 역사 속에 광활한 대지에 살던 선조들은 누구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렵채취를 했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담장을 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소유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를 시작으로 팔고 사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나에게 이르렀을 것이다. 그 최초의 소유주는 누구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연을 사람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일은 자연을 도둑질하고 강탈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나키

"대지와 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 시애틀 추장 연설, 현재도 의미 커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한 탐욕이 현재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가져와
불교시민단체 '무소유 나눔 페스타' "본래 내 것 없다"는 정신 보여줘

스트 푸르동은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땀 흘려 노력해 생산한 곡식이나 오랜 연구와 기술로 물건들을 만들어 이윤과 이득을 얻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땅(토지)은 사람의 노력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며 강물과 산하대지는 인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이걸 특정 개인이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더욱이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며 대를 이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인클로저: 공유지 사유화하기

영국의 16~17세기에 당시 누구나 사용했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며 사유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울타리 치기'라는 뜻으로 '인클로저(enclosure)' 현상이라고 한다. 이전 사람들은 숲이나 들, 임야 토지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 이 공유지는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가축의 방목, 벌목으로 누구든 이용했다. 그러나 장원이 해체되면서 이들 공유지를 몇몇 지주들이 울타리를 치며 사유지화하며 자기 땅으로 만들면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더욱이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친 영역에서 나온 모든 자원(석탄, 석유, 광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굴하며 이득을 얻었다. 땅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지만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도 자신이 만든 것이 더더욱 아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자연과 식물, 동물들이 함께 태어나고, 죽고, 썩고 축적하며 자연과 지질학적 역사가 만들어낸 지구적 산물인 것이다. 인간은 그저 발견하고 캐었을 뿐이다.

오늘날 유럽 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광대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등을 식민지화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광물자원을 수탈하고 채취하여 이룬 물질적 풍요이다. 또한 식민지의 수많은 값싼 노예 노동의 억압 착취를 통해 이룬 경제적 발전이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는 광물과 자원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며 대립해 왔다. 석유이용의 주도권을 위해 중동이 화약고라고 할 정도의 전쟁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자원전쟁이다. 그 모든 전쟁과 환경파괴의 맨 앞은 '내 땅'이라는 '소유' 의식이 그 시작이다.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며",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자연을 '소유'라는 인간의 사회적 관념으로 장악 해버린 것이다.

기후위기, '소유'가 근원

오늘날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성장은 종착지 없는 무한정한 직선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구는 태양과 관계된 에너지에 있어서는 개방계이지만, 물질순환에서는 폐쇄계이다. 따라서 에너지로서 태양광은 거의 무한정한 공급원이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은 지구라는 폐쇄시스템에서 '채굴' '채취'를 기반으로 하는 유한한 물질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과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한정한 경제적 성장은 무한한 상품생산과 소비를 추구한다. 무한성장주의는 곧 무한채굴주의이다. 그러나 무한한 자원채굴은 지구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탈성장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게 되는 이유이다.

땅과 자연의 '소유'를 기반으로 그곳에서 나온 자원을 부의 원천으로 뭇 생명에 대한 고려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없이 무한정 채굴하여 풍요를 누려온 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내 것이니까 아낀다지만 오히려 내 것이라서 함부로 한다. 돈벌이와 이익을 위해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개발하며 파괴하며 결국 심각한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하여 온갖 벌레와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 나무는 새들의 것이 아니듯, 숲이 노루나 곰의 것이 아니듯, 풀들은 벌레들의 것이 아니듯, 자연과 대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무소유는 청빈과 절약이 아니다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이다. 그런데 대부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연상하면서 '적게 소유하는 청빈의 삶'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 정도로 한정되게 사고한다. 앞서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했듯이 소유란 본래 없는 것. 자연 속에 '본래 내 것이란 없는 것', '누구의 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쓰는 것',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나도 내 것이 아닌 '무아'이다.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요구에 수승하며 가장 절실한 곳에 잘 '쓰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보살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생명운동이나 환경운동은 '무소유 사회', 모두가 함께 쓰는 '공유가 많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름하여 '커먼즈(Commons)운동'이다. 공유 토지를 넓히는 활동, 공유사회를 확대시키는 운동,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지 않는 운동이다. 설령 사유지라 할지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공동구입하여 공공으로 만드는 운동(내셔널트러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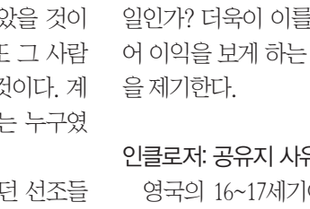
신대승네트워크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2020년부터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토대로한 '무소유 나눔 페스타'(무 · 나 · 페)을 시작했다. '내 것은 없다 · 가격이란 없다', '1년 간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는 기치로 시도된 '돈 없는 장터'이다. 매월 1회 한 장소에서 자신의 안 쓰는 물건 중에서 남에게 선물이 될 만한 것을 내놓는 것이다. 비싸고 싼 것은 없다. 모두 우주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이다. 내놓은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이 돈 없이 거저로 가져가는 것이다. 과거 재활용장터 '아나바다 장터'와 다른 점이다. 당시 코로나로 활성화 되진 못했지만, 앞으로 사찰에서 매월 '무소유 나눔장터'를 통해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함양하면서 기후행동으로 자원재활용과 나눔 정신을 일구는 활동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